

제 208 호

연중 제 33 주일

<평신도의 날>

1976. 11. 14.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제6회 평신도의 날 강론 □

다함께 시성, 시복운동에 참여합시다

“존경과 사랑으로 형제애를 나누시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들에게 큰 관심을 표하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평신도 고유의 역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우리들 평신도의 위치는 높이 들어올림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무거운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작년 평신도의 날에 우리는 “다함께 시성 시복운동에 참여하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전국 협의회(全國平協)>는 시성 시복운동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교회사 학자와 교회법 학자 및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성 시복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국의 성직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시성 시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의 이와 같은 뜨거운 열망은 금년도 주교회의에도 반영되어 13명의 주교님과 3명의 주교대리 연명(連名)으로 복자들의 시성 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시성 촉진 책임 주교님을 선임 해 주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시성 시복운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기적을 얻을 수 있게 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하나는 우리의 삶을 순교자적인 자세로 영위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 성업이 현세 질서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사명이 현세 질서를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완성하는 것이며, 신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인 평신도는 그리스도교적 양심의 지배를 받아”(평신도 사도직 교령 5)에언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언직을 수행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직자와 수도자 및 평신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의 뜻이 우리 조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지

난 1년 동안 우리는 교회 간행물 보급과 평신도 재교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천주교의 기관지인 “경향잡지”의 구독자가 약 20% 증가했고, 하나뿐인 신문 “가톨릭 시보”가 약 30%의 보급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을 위한 피정 교재 「화해와 쇠퇴를 위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바로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유감인 점은 평신도 사도직 운동에 대한 관심입니다. 작년 평신도의 날에 간곡히 말씀드린 평신도 주일 헌금 실적이 부끄럽게도 1,855,147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문제부터 어떠한 새로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몇해전의 주교회의의 결정대로, 오늘 걷는 헌금은 한 번을 걷든 두 번 걷든간에 이를 모두 모아 그 3분의 1은 본당의 평신도 운동에, 3분의 1은 교구 평협 사업에, 나머지 3분의 1은 전국 평협의 기금으로 쓰여져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지난 한해의 일들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이에 덧붙여 금년부터 시행해 보고자

숲 정 이 산책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봉사합시다.

(2) 숲 정 이

하는, 아니 꼭 실천해야 할 일을 두가지만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들은 금년도 전국 평협 총회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거론된 것들이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더욱 당부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 간의 형제애를 높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상적인 교회 건설을 열망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내어놓았습니다. ...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기쁘고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사도행전 2. 42-47)

또한 이 땅의 초대 신자들도 그렇게 살며 하느님을 증거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 공동체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말려진 증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교구이며 예수님의 본당인 교회가 비록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교구를 설정하고 단위 본당을 구분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의 모든 가톨릭 신자가 한 형제라는 공동체 의식은 더욱 고양(高揚)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 간의 격차 문제는 크리스찬 공동체 형성에 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일환으로서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 간의 자매 결연 관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바로서는 종래에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던 도시 교회의 농촌 교회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앞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일보(進一步) 하면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의타심을 기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지는 형제애를 발휘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크리스찬의 참사랑을 보여주어 하느님을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가 서로 기도해주고 찾아주는 일이야 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아가서는 넉넉한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에 교회 서적을 보내주어 도서실을 만들게 해준다거나, 농촌 교회가 도시 교회에 절만 번지르르 하지 않은 질이 좋은 농작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오늘날의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한낱 이상에만 불과 할까요?

둘째, 성직자를 더욱 존경하고 도와 활기찬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건설합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 존립 이유에 대하여 강조한 바에 의하면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설립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교회가 활동하고 봉사할 곳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직자와 평신도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일치됨으로써 이 세상을 대치해 나갈 것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일치된 모습은 교회가 구현해야 할 참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위치가 부각되면서부터 교회 내부의 운영과 관리 또는 재정문제 등에서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어 지려는 불미스러운 모습을 조금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의 가르침에 따라 해소시켜야 하며,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더욱 높은 차원의 그것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자신이 향유하는 지식과 능력과 자력에 따라 교회의 이익을 위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교회가 그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를 통해서 솔직하고 대담하고 지혜롭게 의견을 밝힐 것이며, 그러나 성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성직자들에게 대한 존경과 사랑을 결(缺)하지 말 것 입니다. ...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거룩한 목자들이 스승과 통치자로서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그리스도교적 순종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 또한 사목자들이 기꺼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바치기를 잊지 말 것입니다.”(히브리 13. 17)

거룩한 목자들은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니고 있는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기꺼이 그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그들을 믿고 교회에 봉사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며, 행동의 자유와 여유를 그들에게 남겨 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평신도들의 창의와 요청과 소망을 자부적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할 것입니다.”(교회헌장 37)

이렇게 될 때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모든 활동과 봉사는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을 조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할 것입니다.

금년도 평신도의 날인 오늘 이렇게 강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본당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평신도의 축일인 오늘, 우리의 고유한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구원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발전과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에 성신의 감도하심을 기도드리며 이 강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강생 1976년 11월 14일 「평신도의 날」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전국 협의회
총재 주교 김 재 덕

한국 (流)온수온돌 연탄 보일러

※ 연탄 가스 때문에 고생하세요?

이젠 염려 없어요.

한국 온수 연탄보일러가

연탄가스에서 해방시켜 드리니까요.

연락처: 천주시 중앙성당 상가

전 화: ③ 4 8 7 4, ② 2 6 2 8

범 창 규(베드루)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동 압(모이세)

노송동 ③4874	부안 736	남원 90	장수
다가동 ③4342	정읍 2157	임실 261	고창
전 동 ③2143	김제 45	무주	
군 산 3032	삼례 350	진안	

☆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양 지 쪽□



자랑스러운 평신도 사도 차 동주(라우렌시오) 형제

어떤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종교에 맡아들기도 한다. 개업을 해야겠는데 기반이 없어서 크리스찬이 되기도 한다. 교회기관에 매달려 연명을 하기 위해 세례를 받기도 한다. 직장을 옮기고 나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직장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나 어쩔면 그들도 우리의 스승이다. <나는 어떠한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느님의 큰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백성들인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는 푸르름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더 많다.

평신도의 날인 오늘, 여러 형제자매들 가운데 유독 늘푸르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장한 평신도 사도 한분을 만나 우리의 거울로 삼고자 한다.

차동주 형제는 말단 공무원이다. 남들이 별로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는 교도관이다. 전주교도소에 9년 4개월째 봉직하고 있다. 그는 하느님 사도로서의 일거리를 그의 일터에서 찾았다.

5대를 계속해온 그의 신앙은 젊은 청춘을 (당년 33세) 교도소에서 불사르기로 작정하는 데 밀거름이 되었다. 그의 부친과 장인(丈人)은 경읍 본당의 공소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사도의 집안이다.

그는 자신의 직분이 "감옥에 갇힌 주님"(마태오 25장 최후의 심판)을 대하게된 것을 다행으로, 아니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인(囚人)들과 함께 그들의 방에서 덩굴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이 온통 저주스럽기만 하고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한 그들에게 그의 참뜻이 전달되기까지는 무척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했다.

드디어 작년 9월 12일에는 교도소내에 <평화의 모후> 프레스디움(聖堂)이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그의 뜨거운 정성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뛰어 주었다. 그간 220명이 새로 영세하고 56명이 견진을 받게 되었다. 현재 프레스디움은 차동주 형제를 단장으로 하고 27명의 재소자 교우들이 활동하여 예비자만도 30여명이다.

그간 재소자 김루가 형제의 최후 수술이 교도내 신부님들이 마련해준 성금 90,500원과 안득수(마리오, 내학병원 내과과장)형제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리에 끝나기도 했다. - (※ 이에 대한 11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중 「성금과 성모병원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달라 차동주 형제는 심히 죄송스럽게 여기고 교형 자매들의 오해 없기를 바라고 있다.) 성심학교와 해성학교에서는 2,000권의 양서와 사과 10상자를 전하기도 했다.

전주교구 8차 푸르실로를 수료한 차동주 형제로 인하여 전주교구 푸르실로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보내주는 값진 빨랑카(기도의 선물)가 푸르실로 수강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교도소 15척의 높은 담이 사랑의 물결로 낮아지고 있다. 한 젊은 사도의 힘으로. 차동주 형제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숨은 내조자 김야네스 여사의 공이 크다. 하느님께 축복받은 그의 가정에는 3형제의 귀염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요십이(72) 그림영웅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5013
김원준(야교버)

결 (축) 혼

임 순욱 씨 장남 준영(시몬) 군
문 복석 씨 4녀 묘숙(젤마) 양

일시: 11월 23일(화) 12시
장소: 전주 중앙 천주교회
주례: 이 대권 신부

*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드립니다 *

세느 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교장 동편입구
전화 ②6219

[축]

후원...K.B.S, M.B.C, 전북 신문사

제 30 들 성심 어린이 기념 잔치

일시: 11월 14일(일)
오후 2시, 7시 40분
장소: 시민 문화관
주관: 성심 자모회

각종 생파자 식빵 및 케익

미미제과소

전화 ②658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 은행 옆>

김민주<가타리나>

□ 희소식 !!!

나왔다 가스 완

(연탄가스 제독제)

★ 16년간 연구하여 국립 연구기관의 유해가스 제독의 우수한 성적서를 획득하였음.

★ 1개월 경비 500원

□ 책임지고 따뜻하게

★ 한국(流) 온수 보일러

★ 금화식 보일러

가스완 전주 특약점

한국(流) 온수 보일러 전문 지점

주원배(실베들)

□ 전주 매곡교 사거리

(전화 ②2143)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식사항

1. 조국과 고통받는이를 위한 기도회 (15일(월) 오후 7시반, 전통성당, 교구정의 평화위원회 주관) 크리스찬 양심으로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겹차로 추워지는 날씨에 옥중에서 고통받는 형제들, 특히 부룬수술을 받았었던 문정현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순정이 장간 4주년 (11월 28일)에 즈음하여 공소 교우들이 주일날 순정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당 소식을 월요일 오전에 발송해 주시면 수요일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분당의 협조를 바랄뿐입니다.
 - ※ 광고료 안내 (77년 1월 2일부터 시행)...요금은 1회분 (1개월 이상 선불이면 10%할인) (5cm×3.8cm)...1,000원 (7.5cm×3.8cm)...1,500원
 - 謹用 최 루시아 (11월 7일 선종, 향년 84세, 김 병영 신부님 자당)

(중앙) ③3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전화 ③3874 보좌 신부 이 종 원
 사도 회장 이 상 용

1. 꾸리아 릴레회: 오늘 오후 2시 <강당>
2. 교회 모지 관리 위원회: 오늘 오후 3시 <회의실>
 ※ 임원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3. 성모회 릴레회: 다음주 공식 미사 후

(노송동) 주임 신부 공 아 영
 전화 ③7032 사도 회장 박 종 용

1. 신용협동조합 릴레회: 오늘 공식 미사 후
2. 애령회 간부 선출: 회장-전진남, 부회장-고여옥, 이정은
3. 반상회(남노송동): 중도반 <길 엘리사벳>-16일, 성질반 <이 네리사다>-17일, 평화반 <서 발바라>-18일, 형제반 <바도모니카>-19일
4. 다음주부터 성가연습: 공식 미사전 15분간 성가연습이 있으니 9시 45분까지 성당에 나오십시오 <준비-공동체 성가집>
5. 재속 형제회 청년 수련: 매월 둘째주 오후 8시
 ◎ 많이 참석 하세요.
6. ★ 축 결혼: 18일(목요일)
 10시-최 동수(분도)군, 정 회자 양
 11시-백 진용(요한)군, 김 경숙(누시아)양

(덕진) 주임 신부 박 종 근
 전화 ③2182 사도 회장 김 용 환

1. ★ 축! 분당 신부님 영명(안드레아) 축일 30일(화) -영명 축일(30일)을 28일(주일)로 앞당겨 축하식을 가지겠으니 분당, 공소 전 교우님께서는 정성어린 기도와 예물로 이날을 더욱 더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 사도회: 공식 미사 후
3. 덕진동 회장 보선: 이 귀연(분도)-수고 하세요.
4. 77년도 불현금 신입: 공식 미사 후
 ※ 꼭 신입하세요
5. 분당 확인지도: 22일(월), 교육-오후 2시~4시, 미사-오후 5시, 분당대기-사도회 임원, 구역장, 공소회장은 오전 9시까지 모이시기 바람. <확인지도, 신자교육 및 미사가 있으니 전 교우님은 참석해 주세요>
6. 성서 동지회 첫 모임: 12일-청년 <오후 7시반>, 13일-고등학생 <오후 4시반> ※ 준비물-신약성서, 공동체 성가집

7. 성서 신축성금: 지난주 신입-김효순 <6천원>, 권태일 <5천원>, 조순봉 <1만원>, 유정순 <3만원>
 계 51,000, 누계 4,837,500원

(복자) 주임 신부 김 종 길
 전화 ⑤5238 사도 회장 조 성 로

1. □ 분당 피정: 19일 오전 9시~오후 4시
 ◎ 부녀회원 전원과 각 심심단체 회원, L.M단원
2. 교우회 회합: 16일-(어은관) 양 요한씨 댁, 17일-(중앙동) 홍 마리아씨 댁

(서학동) 주임 신부 오 현 택
 전화 ②2276 사도 회장 박 장 준

1. L.M 간부회합: 오늘 공식 미사 후
 ◎ 간부님은 전원 참석 바람.
2. 첫 영성체식: 21일(주일) ※ 특별교라: 13일~20일, 매일 오후 5시. 빠짐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 축 낙성...구이 광곡리 공소...뜻깊은 신자들의 특별 모금 <1973년~1976년>으로 이루어진 구이 광곡 공소가 오늘 오후 3시에 주교님 집전하에 축성되오니 많은 기도와 참석 바랍니다.
4. 도장공사 헌금 신입 <제 12반>: 오 치순 <1만원>, 송 복례 <5천원>, 오 흥선, 고 동춘 <각 3천원>, 김 중수, 김 영기, 김성근, 조 갑주, 이 창준, 이 안나, 박 한수, 김 수중, 고 광필, 진 한식, 이 현, 진 영수, 정 재현 <각 2천원>, 박 옥순, 최 병일 <각 1천 5백원>, 방 진옥, 백 단옥, 양 화성, 유준례, 김 부임 <각 1천원>
5. 가정방문 및 반회합: 16일-5반, 17일-6반, 18일-7반, 19일-8반

(전동) 주임 신부 김 환 철
 전화 ③3222 보좌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유 석 중

1. 자모회. 장우회 릴레회
2. 「피정」 가톨릭센터에서 진행중-많은 기도 바랍니다
3. 성탄절을 앞둔 불우 이웃돕기 성미운동(자모회)
4. 미사시간 변경: 오전 6시반, 오후 7시
5. 유치원 「제 30돌 어린이 기념잔치」: 오늘 2시, 7시반 <시민 문화관>
6. 제 4지구 주일학생 축구 필승! 전동
7. 성모월 10주년 공개행: 오늘 오후 2시
8. 신용조합 릴레회: 15일 저녁 8시 정각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수 신부님 취임	성모회 릴레회, 주일학교 소풍	7,80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안동 황	대의원회, 방지거 재속 형제회	71,905원
		20일 사도회 성모회 릴레회 평일 미사시간 변경	24,141원			애령 위원회 발기총회 신동 공소 미사	23,145원 10,245원
제 2 지구	야 운동 명동 중앙	다음주 사도회 분과 위원회	5,435원	제 4 지구	중 앙 노송동 덕진 자 서학동 전	꾸리아 릴레회 반상회 일정 발표 사도회 릴레회 19일 분당 피정 구이 광곡리 공소 축성 자모회, 장우회 릴레회	90,195원 42,205원 18,835원 31,165원 25,330원 114,020원
		교우 상가 파막, 주소록 작성 바다의 별 꾸리아회 꾸리아회, 신용조합 이사회 11일 용안성당 상향식	58,000원 40,890원 17,665원 16,395원				
제 3 지구	산 산산 산	한대골 공소 신자 20.1조 봉헌	7,840원	제 5·6 지구	무 장진 남순입	구역장 전체 모임 돈 보스꼬회 릴레회 백운 공소 신설 16일 신희동 조합 릴레회	12,350원 8,760원 20,315원 원 원 원
		가정 방문 20일 구역장 회의	19,665원 15,641원			다음 주일에 유아 세례	5,475원